

초록번호 09-2

제 목	국 문	자가건강인지도에 따른 단기간의 사망과 의료이용도 비교	
	영 문	Self-rating health perception: Effect on mortality and health care utilization.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권순석, 김상용, 임정수, 박경수, 선병환, 남해성, 손석준, 최진수 전남의대 예방의학 교실	
	영 문	Sun Seog Kweon, Sang Yong Kim, Kyeong Soo Park, Byung Hwan Sun, Hae Sung Nam, Seok Joon Shon, Jin Su Choi. Dept of Preventive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분 야	역학	발 표 자	김상용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 연구중 ( O ) → 완료 예정 시기 : 98 년 12월		
<p><b>1. 연구 목적</b></p> <p>자가 건강인지도(self-rating health perception)는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개인의 느낌과 주관적인 믿음을 반영하며 또한 이미 파악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p> <p>건강믿음모형(Health Belief Model)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믿음에 따라 의료이용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각종 건강행위(Health behavior)의 차이에 의한 사망(mortality)의 차이도 장기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p> <p>본 연구는 전남도 일부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가 건강인지도가 향후 3년간의 의료이용의 정도와 사망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여부를 조사해 봄으로써 자가건강인지도의 예측지표(predictor)로서의 기능을 평가해 보았다.</p> <p><b>2. 연구 방법</b></p> <p>95년 1~2월에 주암호 인근 10개 읍·면에서 다단계 집락추출로 표집된 6817명중에서 설문조사에 응한 3414명에게 건강인지도에 관한 단일항목의 질문(현재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을 시행한 결과 양호군은 1711명 비양호군은 1374명으로 조사되었다(결측 : 329명). 이후 3년간 이 두 군간의 의료이용도와 사망정도를 비교하였다.</p>			

먼저 의료이용도에 대한 비교를 위해서 보험의 종류가 지역의료보험인 1304명의 3년간(95년-97년)의 의료보험 지불자료에서 파악된 총 수진건수와 투약일, 그리고 지출의료비를 결과변수로 이용하였다. 설문 실시 이전인 94년의 의료이용도를 기준점(baseline)으로 두 군간에 의료이용도의 변화양상을 비교 해보았다. 분석방법으로는 반복측정자료의 분산분석법(repeated measure ANOVA)을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사망정도에 대한 비교를 위해서 97년 12월까지 3년간 해당지역 행정관청에 접수된 사망신고자료를 이용하였다. 사망자료를 수집한 결과 전체 설문자 3414명 중에서 사망한 자는 123명으로 파악되었다. 건강인지도에 따른 두 군간의 생존을 비교는 Cox비례위험모형(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였으며, 연령과 성별을 보정하여 비교하였다.

### 3. 연구결과

1. 평균연령은 양호군과 비양호군이 각각 56.10세와 59.25세로 비양호군의 연령이 높았고, 남자(58.0세)가 여자(56.7세)보다 연령이 높았다. 그리고 남자는 60.3%, 여자는 51.6%에서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2. 94년, 95년에 수진건수는 여자가 많았으나, 나머지 기간동안의 수진건수와 전(全)기간동안의 투약일수 및 지출 의료비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전기간동안 3가지 항목 모두에서 비양호군이 양호군에 비해 더 높은 의료이용도를 보였다.( $P=0.000$ )

3. 반복측정자료의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94년의 의료이용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이후 3년간의 의료이용정도의 변화양상이 자가건강인지도에 따라서 달라졌으며 수진건수, 투약일, 지출의료비 등 각 항목 모두에서 비양호군의 의료이용도가 더 크게 증가하였다.( $P<0.05$ )

4. 3년간의 생존율의 비교결과 양호군의 누적 생존율이 더 높았으며 연령과 성별을 보정한 후에도 양호군의 생존율이 1.88배 ( C.I = 1.308 ~2.715)로 더 높았다.